

인천항만공사 제7대 사장에 이경규 씨 임명

-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할 책임자로 평가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15일(월)자로 인천항만공사 제7대 사장에 이경규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3년이다.

이경규 신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부속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해양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사장은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공직을 시작하였고, 정책기획관과 수산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임 사장이 인천항 인프라 적기 확충, 물동량 증대,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책임자	과 장	오영록 (044-200-5750)
		담당자	사무관	오성철 (044-200-5751)

□ 이 경 규(李 瓊 揆)

○ 생년월일 : 1966년 11월 21일(전남 광주)

○ 학 력 : 조선대부속고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해양정책학 석사



○ 주요경력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22. 8 ~ '23. 3)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21. 9 ~ '22. 8)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21. 4 ~ '21. 9)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20. 2 ~ '21. 4)